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한

즐거로운 청렴생활

2020. 12.
06호

2020년 청렴한 당신 덕분에 !

전북교육청, 종합청렴도 1단계 올랐어요 !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치열하게 지켜온 청렴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청렴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가치이니깐요.

청렴은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약속!

장 지오노 작가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때 숲을 이루었던 나무들은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솟이 되어 팔려나갔고,
나무가 사라지고 물이 말라 더 이상 그곳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이 얹혀있는 것들을 놓고 끊임없이 싸웠고,

자신만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늙은 양치기 노인은 황무지 속에서도 묵묵히 도토리를 땅에 심고 떡갈나무를 심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무런 놀라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공동의 선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어느 한 사람의 작은 일이 자연을 살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나무를 심는 것처럼

개인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공동의 선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정신은

청렴한 마음과도 같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어떠한 부패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가 되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청렴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향해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누군가 이끌려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고결한 삶!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청렴은

다음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던 청렴에 대한 열정은
 청렴도 한 등급 상향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제 운영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노력하여 외부청렴도는
2단계 경총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담지 못한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이
 이번 청렴도 평가를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12월호 청렴소식지를 마치며

올 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청렴소식지를 창간하였습니다.
 매달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청렴소식지가 시간을 거듭할수록
 청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을 뚫하지 말고 스스로 촛불을 켜라”는 스코틀랜드 속담이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어둠을 불 밝히는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청렴소식지 편집자 권 미 라 -

청렴은 전북교육의 얼굴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과 학교는
 부패없는 청정한 지역입니다.
당신의 바른 목소리가 청렴한 세상을 만듭니다.

